

현행 돼지출하체계상의 문제점



조 용 희
(영남대학교 교수)



I. 서 언

우리나라의 생돈 및 돈육의 유통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산지에는 아직도 상인의 세력이 강하고, 유통경로·유통기관·유통체계 등 구조적인 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을 뿐 아니라, 거래방법·수송·저장·표준화·가공·포장·시장정보 등 유통기능의 면에서도 불합리 하고 부실한 점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정책당국자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개선의지의 부족으로 인해 그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지난 연말 이후 양돈업계는 어미돼지의 수가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오래되지 않아 양돈불황이 닥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함께 최근에는 육돈의 공급과잉으로 도축·도매시장으로의 출하와 도축·도매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다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면에서는 최근 육돈의 출하 및 도축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들을 알아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II. 출하 및 도축·도매과정의 유통문제들

최근 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괄목할 만한 성장 발전으로 계통출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계획출하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



리나 아직도 많은 산지에서는 생돈의 유통이 반출상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소비지 도축·도매시장에서는 반출·반입상과 대형조합 등 대규모 출하자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어 소규모 지역조합이나 생산자는 거의 항상 이들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므로 도매시장으로의 직접출하가 저지되고 있다. 도매시장의 대규모 출하자에 대한 우대와 생산자 등 소규모 출하자에 대한 부당한 박대는 생산과잉에 의한 양돈불황의 시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도매시장은 멀리 대도시에 개설되어 있고 서울·부산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소규모의 생산자, 또는 양돈업자 단체는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요즘 같은 과잉출하의 시기에는 이른바 「차상(車上) 계류」라는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

최근 육돈 출하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은 농가의 무계획적 출하, 장거리 생체유통, 시설 부족에 의한 장시간 도축 대기 등과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도축·도매시장은 장비 및 시설의 부족과 노후화, 조절되지 않고 있는 도축 부조리, 불합리한 도체의 평가, 불완전한 검사제도, 비위생적인 시설과 환경 등으로 생산자에게는 물론이고 가공업자·소비자·수출

업자에게까지도 적지 않은 피해와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1. 무계획적 출하와 차상계류

일부 도축·도매시장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무계획적인 출하, 이른 바 자율출하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율출하제는 충분한 계류·도축·저장시설의 확보로 무제한 전량 도축이 가능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정된 시설에 무계획적인 홍수출하가 이루어질 때는 「차상계류」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에 따른 피해를 생산자가 감당해야 한다. 대도시의 일부 도매시장이 전량도축을 장담하고 있지만, 장시간 대기·차상계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이 오늘의 실정이다.

차상대기는 생체감량(1일 두당 약 1.5kg), 폐사(2일 계류시 25두당 1두)에 의한 손실 외에 차량대기비용, 출하자 숙식비 등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고, 소음·악취 등 공해까지 유발하고 있다. 요즘처럼 2~3일 정도의 차상대기가 이루어지면 출하자의 물적·시간적·정신적 피해는 막대하게 된다.

2. 장거리 생체유통의 문제

대규모 도축·도매시장은 그 수가 적고 일부 대도시에 편중 개설되어 있다. 서울·부산은 복수 도매시장 지역이지만 여타의 대도시에는 도매시장이 있어도 독점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육돈 출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불공정거래·부당행위의 여지가 다분히 있다.

특히, 이들 대규모 특급도축장은 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대소비지의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병설되어 있고, 도심 또는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생산자는 생산자 도축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거리 생체유통을 불가피하게 하고 악취·소음·교통난 등 공해와 도시문제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장거리 생체수송은 수송비와 감량을 가중시키고 불편·비능률·비위생·질병 전파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장거리 수송에 의한 폐사와 도축 직전의 검사와

정에서 발견되는 부적격 가축에 대한 위험부담까지를 감안하면 생산자가 감당해야 할 손실은 무척 크다. 더욱이 장거리 생체수송이 불가피한 현실에서는 설령 생산자가 신속한 정보에 따라 계통출하에 응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즉각적인 출하가 어렵게 된다. 만약 생산자가 이에 응하여 멀리 떨어진 도축·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도축시간을 놓치기 일쑤여서 결국 시간차로 인한 경제적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가일층의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거리 생체유통은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거니와 그 중에서도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체감량에 의한 손실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축협 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90kg의 생돈을 기준으로 할 때 100~200km 수송시에는 5kg, 200~300km 수송시에는 7kg, 400km 이상 수송시에는 11kg 정도의 감량이 발생하는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3. 도축부조리

최근 부산물 경매제도의 채택과 종업원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출하배정제의 실시와 도축순서의 사전 결정에 따라 부당해체·불공정행위 등 도축 부조리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와 질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곳에서는 아직도 계류시설의 이용, 도축순서, 도살·해체, 지육도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많은 부조리가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조리는 요즘같은 홍수출하 때에 더욱 성행하고, 그 피해는 주로 영세출하자가 당하고 있다. 그래서 도축장에는 무력한 영세 개인 출하자가 당할 위험을 부담해 준다는 구실하에 이른 바 「위탁상」이라고 하는 도살알선업자까지 끼어들어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도축장에서의 부조리와 불신은 워낙 뿌리가 깊어 거의 모든 도축장에서 아직 조절이 되지 않고 있는 바, 대규모 출하자들마저 아직도 도축과정의 입회를 고립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게다가 아직도 도축 순위의 조작을 위한 이른 바 「급행료」도 조절되지 않고 있다.

4. 불합리한 평가 및 거래방법

산지에서의 생축 거래에는 아직도 눈대중 또는 단순한 체중측정의 비합리적인 방법이 통용되고 있다. 도매 시장에서는 경매의 방법에 의해 지육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질적 평가기준이 없고 나름대로의 경험과 순간적인 행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가치판단의 객관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경매의 방법은 다수의 원매자가 경쟁적으로 상품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여기질 수도 있으나, 육류의 상품적 특징과 현행의 지육 경매방법으로 미루어 볼 때 여기에도 많은 문제가 따르게 된다. 경험이 비교적 풍부한 중매인도 빠른속도로 스쳐가는 도체에 대해 암·수 구분을 못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과학적인 기준이 없는 경험과 행운에 의존하는 평가는 출하자·구매자 양자에게 위험부담을 조장하고, 위험부담이 클수록 소량 출하자와 소량 구매자에게 더 큰 타격을 주게 되며, 이러한 위험은 요즘 같은 홍수출하기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5. 불완전한 위생대책과 검사업무

대부분의 도축장이 전근대적인 장비·시설·처리방법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내의 육가공기업이 원료육의 오염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저하·특성상실·저장성 저하를 호소하고 있는 것은 도축장의 비위생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도축장에서는 지육과 부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뿐만 아니라, 검사 업무도 철저해야 한다. 물론 법에 따라 생체검사와 해체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썩 부실한 것이 현실이다. 검사업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 오제스키병, 항균·항생물질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기타 악성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검사원 부족, 시설 미비 등으로 그 업무가 형식적이라는 평을 면치 못하고 있다.

Ⅲ. 금후의 대책

최근 육돈의 과잉출하, 장거리 생체유통, 도축부조리 그리고 지육의 불합리한 평가와 거래방법, 불완전한 위생대책과 검사업무 등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는 모든 유통관련자들에게 많은 문제와 피해를 유발하고 있지만 특히 생산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홍수출하, 차상계류, 생축유통, 도축부조리 등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최근 사태에 즈음하여 이에 대한 몇가지 대책을 강구하여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하배정제 등 계획출하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과잉출하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막아야 하고, 생돈은 도축 직전까지 농장의 우리 안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출하배정제와 같은 계획출하의 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개별 생산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하겠다. 출하배정제는 이미 '83년 12월 축협공판장이 실시하여 효과를 보았고, '89년 4월 대구에서 실시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출하배정제는 협동조합 등 성숙된 생산자단체의 계통조직과 상호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먼저 이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도축장을 주산지로 이전해야 한다.

충분한 시설과 체제를 갖춘 도축장인 주산지에 설립 되면 생산자는 수송비와 생체감람에 의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질병예방·공해·교통난 등 도시문제의 해결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수 있어 유익한 점이 많을 것이다. 다만, 도축장의 산지화(産地化)는

수송·저장·도로·정보 등 각종 시설의 현대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주산지로서의 규모와 성격이 뚜렷한 지역이면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세째, 도축시설의 현대화와 작업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위생·공중보건·작업능률 등을 위해 계근·도축으로부터 저장·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시설과 장비를 보완·대체하여 현대화 해야 한다. 특히 도축 부조리의 예방을 위해서는 계근의 자동화, 작업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종업원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네째, 지육의 등급화 등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육류는 상품의 품질이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질적 등급화가 조속히 시행 정착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생축·지육·정육중 지육의 등급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소 등 다른 가축에 비해 돈지육의 등급화가 가장 먼저 실시되어 가장 잘 정착·보편화 되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Ⅳ. 결 언

육돈의 과잉공급과 함께 홍수출하가 시작되고 있고, 이에 따라 출하와 도축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육돈의 출하 및 도축과 관련된 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고 심각하여 이를 한정된 지면에 구체적으로 거론할 수가 없지만, 최근의 주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제시해 보았다.

따라서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양축가를 비롯한 모든 축산관계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으나, 무엇보다 양돈업자 스스로의 보다 적극적인 자구책과 정책당국의 보다 깊은 관심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